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커미셔너 MARK J.F. SCHROEDER의 성명

"값싼 언론의 조회수를 얻으려는 일부 입법자들의 위선과 허위 진술은 무책임한 것이며 해명이 필요합니다.

새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10년여 년 전부터 계속 25달러였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규정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이번 정부 이전인 2009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입법부는 이 수수료를 변경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 어떤 세력이 우세할 때에도 계속 25달러로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입법자들이 현재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에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지사는 수수료를 낮추길 원합니다. 입법자들은 과거 수십 년간 수수료를 낮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께서는 현재 그들이 진심으로 즉각 요금을 낮추길 원한다면 특별 세션(Special session)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특히 우리 주 전역에 번호판을 판독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손상되었거나 반사 코팅이 벗겨졌다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세입 손실은 다른 운전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 관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의 국가 표준에 따르면 번호판의 유효 수명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점점 이후 개별 번호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입법부가 어떤 번호판이 10년이 지나도 상태가 좋아 교체할 필요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번호판 검사 메커니즘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10년 수명 교체 프로그램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되므로 아직 우리에게 입법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향의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